

우주의 이치를 내 한몸에 갖추기 위해

일월오봉도 병풍

[오주석이 사랑한 우리 미술] 에서 발췌



중학교
미술수업자료
행복한 미술수업을
위하여



작가 미상, <일월오봉도 병풍>

조선 19세기, 종이에 채색, 162.6×337.4cm,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

<일월오봉도 병풍>은 조선 궁궐의 용상(龍床), 즉 임금이 정무를 볼 때 앉던 평상 뒤에 쳤던 병풍이다.

조선의 왕은 반드시 이 병풍 앞에 앉는다.
멀리 행차를 할 때도, 죽어서 관 속에 누워도,
심지어 초상화 뒤에도 이 병풍이 놓인다.



<일월오봉도> 즉 해와 달, 다섯개의 봉우리가 있는 그림이다.
그림이 한 장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여러 장으로, 병풍으로 만들어졌다.

작품 오른쪽에 붉은 해, 왼쪽에 하얀 달이 동시에 떠 있다.
그것은 낮과 밤이 공존하는 현상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
낮과 밤의 근원을 그린 것이다.

화면은 완전한 대칭에 광물성물감으로 그려져서
화려하고 장엄하며 색채가 눈부시다.

<일월오봉도>의 세계는 관념적, 추상적이지만 우주의 조화를 상징한다.

하늘의 해와 달은 음양(陰陽)이다.

음양은 우주를 이루고 지속시키는 두 힘이다.

하늘(天)은 하나(一)로 크고(大) 이어져 있다 [一].

땅은 물(땅, 육지)과 물 돌(二)로 나뉘어 끊어져 있다 [一 一].

해와 달은 자강불식(自強不息)한다.

즉 스스로 힘써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쉬지 않는다.

하루도 예외 없이 정확한 시간에 주어진 행로를 걷는 것이다.



땅은 후덕재물(厚德載物)이다.
두텁게 쌓여 자애롭게 만물을 실어 기른다.

다섯 봉우리가 있다. 오행(五行)이다.
그 좌우에 흰 폭포 두 줄기가 떨어진다. 물은 햇빛, 달빛과 함께 생명의 원천이다.
그 힘이 하늘과 땅 사이의 만물을 자라게 한다.

만물 가운데 가장 신령하고 도덕적인 존재가 사람이다.
그리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덕이 가장 커서 드높은 존재가 왕이다.



왕은 날마다 <일월오봉도 병풍> 앞에 앉아
경건하고 차분한 마음으로
하루의 정사에 임한다.

그러면 하늘(天). 땅(地). 사람(人)의 삼재(三才; 우주를 이루는 세 바탕)가 갖추어진다.
음양오행은 동양학의 기본이며 사유의 틀이다.

그러므로 사람이 음양오행을 본받는다라는 것은
굳셀 때 굳세고 부드러울 때 부드러우며
항상 인의예지신의 미덕을 실천한다는 뜻이다.

왕은 이 병풍 앞에서 올곧은 마음을
지녀야 한다.

하늘과 땅과 사람을 꿰뚫는 이치를
내 한 몸에 갖추어야 한다.

이때 삼재[≡]를 관통하는
대우주의 원리가 사람이라는
소우주 속에서 완성된다. [≡ + | = 卍]

왕이 정좌하면 우주의 조화를 완결짓는
장엄한 참여예술이 연출된다.

진정한 예술은 평범한 삶에 복돋는다.
그리고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
완전히 비추고 겸허하게 자연을 배워
우주의 질서를 완성케 한다.

대지에 굳게 뿌리 박고 하늘을 향해
우뚝 솟은 저 붉은 우주목처럼...

